



##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춘** 스러운 양복, 까만 얼굴, 어색한 억양으로 “뵙니  
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를 외치는 불량카.  
코미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소 과장된 표현과 웃음이  
있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현실은 뼈아프다. 턱없이 낮

은 임금에 그나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장, 그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 장인, 이 외에도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량  
카 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걸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람 개개인의 품성에 대한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배어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몇 년 전 그들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 TV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또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라는 큰 틀에 가려진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동자, 그것도 제3세계 외국인, 게다가 '여성'이라는 최악의 핸디캡을 모두 끌어안은 이주여성노동자들. 한숨조차 내뱉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 이주여성인권연대를 찾아가 보았다.

###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난 2001년 3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구미 가톨릭센터',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렇게 세 단체가 모여 발족된 이주여성인권연대(이주여성연대)는 폭력, 성차별, 성희롱, 모성보호 등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하여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모임이다. 이주여성연대 사무국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김민정 씨는 "2001년 당시에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대체법안 문제 등 그들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보다 큰 사안에 가려져 거의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죠."라고 창립 배경을 설명한다.

이주여성연대는 상담 사례를 통한 창립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들의 문제를 널리 알리는 작업과 함께 실태조사, 상담사례 모음, 한글교육, 상담자 교육, 성교육, 교육책자 발행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세계여성인권대회 참석 등 국내외 다방면에 걸쳐 숨가쁘게 달려왔다. 세 단체의 대표가 모두 여성이었기에 보다 쉽게 의견 일치가 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함께 일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할 일은 많은데 인력과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해 함께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각기 활동을 하면서도 결과물은 반드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정보를 아우를 수 있었다.

사실 그들이 가지는 작업량이나 일의 범위는 놀라울 따름이다. 몇몇 사람들이 기본적인 업무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자료 수집, 대안 마련까지 도맡아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이요? 아쉽죠. 사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쌓였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부족하지만 그보다 어려운 일은 정말 일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지요. 단순히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만으로는 이 일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꾸준한 관심과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크게' 환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저럭 꾸려가는 일에는 이미 도가 텅기 때문일까. 여성부에서 '안양이주노동자의 집-이주여성인권연대'를 위해 지원하는 인건비는 단 한명

몹. 그것을 조금 자르고 또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끌어 오면서 일을 꾸려간다. 일의 대충이 없고 업무가 많은 것은 그다지 큰 애로 사항이 아니라는 김민정 씨. 물론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따로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아, 이들은 그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듯 하다.

### 선택은 있으나 해답이 없다

이주여성연대는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예술홍행비자(E-6), 2차 산업 종사자, 국제결혼 등 직종별로 나누고 또 다시 유입, 정착, 정착 이후 등 시기별로 차근차근 분류하여 그에 맞춰 대안을 생각한다. 2차 산업 종사 여성들의 경우 점차로 한국 남성에 의한 피해보다는 같은 국적의 남성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에 남녀 모두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남성들의 경우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며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방법의 문제라고 봐요. 한국식 성교육보다는 그들의 문화나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현

재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보강하면서 점차 그 수를 넓혀가야겠죠.”

다만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점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호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도 생리휴가, 모성보호법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감히 생각도 못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자 관련 등 현행 법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연대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없기에 ‘답이 없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를 맞아 한국에 정착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배우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귀화할 수가 있다. 즉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귀화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 물론 올해 초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배우자 사망, 실종 혹은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친권이 있을 경우와 이혼, 별거의 사유가 남편에게 있거나 법무부장관이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예전에 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살인미수 사건으로 형사상 확정 판결이 났지요. 그럴 때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방임,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폭력…… 어떻게 증명하나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한국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도



그분들은 진술서 써 줄 친정이라도 있죠. 이 옷이요? 당연히 안 써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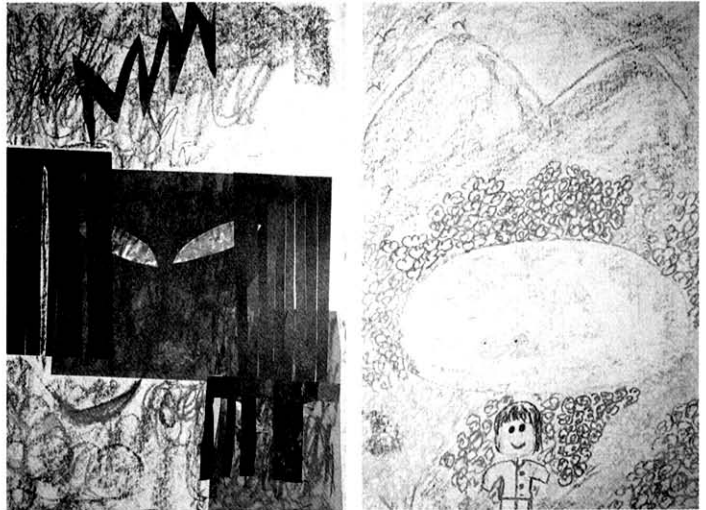
이렇듯 남편에게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설사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2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좁다. 그저 참고 견디든지, 혹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본국에서 잘 살았다면 무엇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으로 왔을까. 그 어떤 선택도 답답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지켜보는 이주여성연대 또한 그저 미안하기만 할 뿐이다.

가출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한글교육이며 미술치료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젠가 그들은 ‘선택’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같은 높이의 시선으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도 매매혼, 인신매매 등 자극적인 단어가 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조심스럽다. 분명히 인신매매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나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김민정 씨의 설명이다. “정작 본인들은 자신이 성매매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운이 없어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죠.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자신에게 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집 왔는데 돈 때문에 팔려 왔다고 본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국제 결혼한 모든 남성들이 인권폭력의 가해자로 매도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프죠.”



가정폭력피해자의 미술치료 작품. 자신이 느끼는 현재의 상황(왼쪽)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표현 한 것(오른쪽).

제도의 어떤 불리함보다도 더한 상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모멸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주여성연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동정심이 아닌 내 생각, 내 기준을 떠나 그들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한순간에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큰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다.’고 말하지만 기댈 곳 없는 이주여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보금자리이며 든든한 언니들일 것이다.

사무실 이곳저곳에 필리핀, 베트남, 타일랜드 등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예쁜 인형들이 놓여있다. 행복하게 미소 짓는 그 인형들처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 날 수는 없을까.

세계화, 국제화 시대이기는 한데 제3 세계는 포함되지 않고, 사람은 평등한데 남녀문제는 별개인 이상한 세상. 그래도 이주여성연대처럼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서민숙〉